

이코캠퍼스

이코캠퍼

이코캠

이코

이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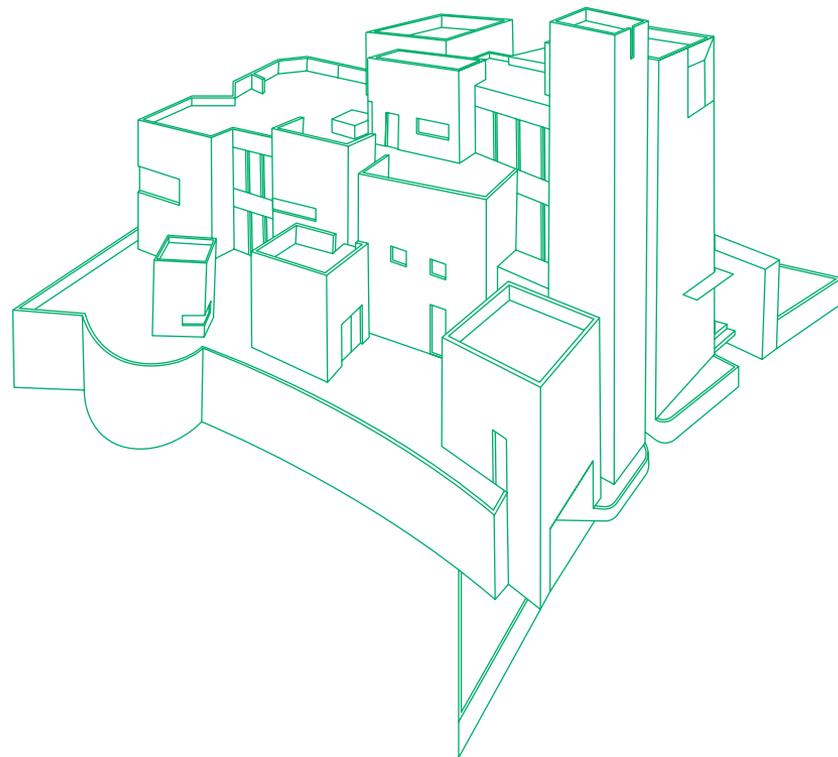
재단

경제단

환경재단

# CLIMATE BREAKTHROUGH CENTER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디딤돌  
함께 놓아주세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새로운 생각을 얻으려면 오래된 글을 읽으라고 합니다.  
중용中庸 23장을 읽었습니다.

“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나오고 곁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5년간 오직 한길, 환경운동만 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살면 안된다는 간절함 뿐입니다. 남은 생애를 바쳐 기후위기를 돌파하는 디딤돌을 세우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홍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서촌 제일 높은 언덕인 에코캠퍼스의 위치는 북악산과 인왕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권율 장군,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이 살던 필운대와 인왕산 부채바위가 내려다보는 풍광으로, 봄이면 진달래 화전놀이, 장안의 문장가들이 시를 짓고 자연을 음미하던 곳입니다. 이곳이 시민 환경단체의 공간으로 자리잡는 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효상**

건축가, 이로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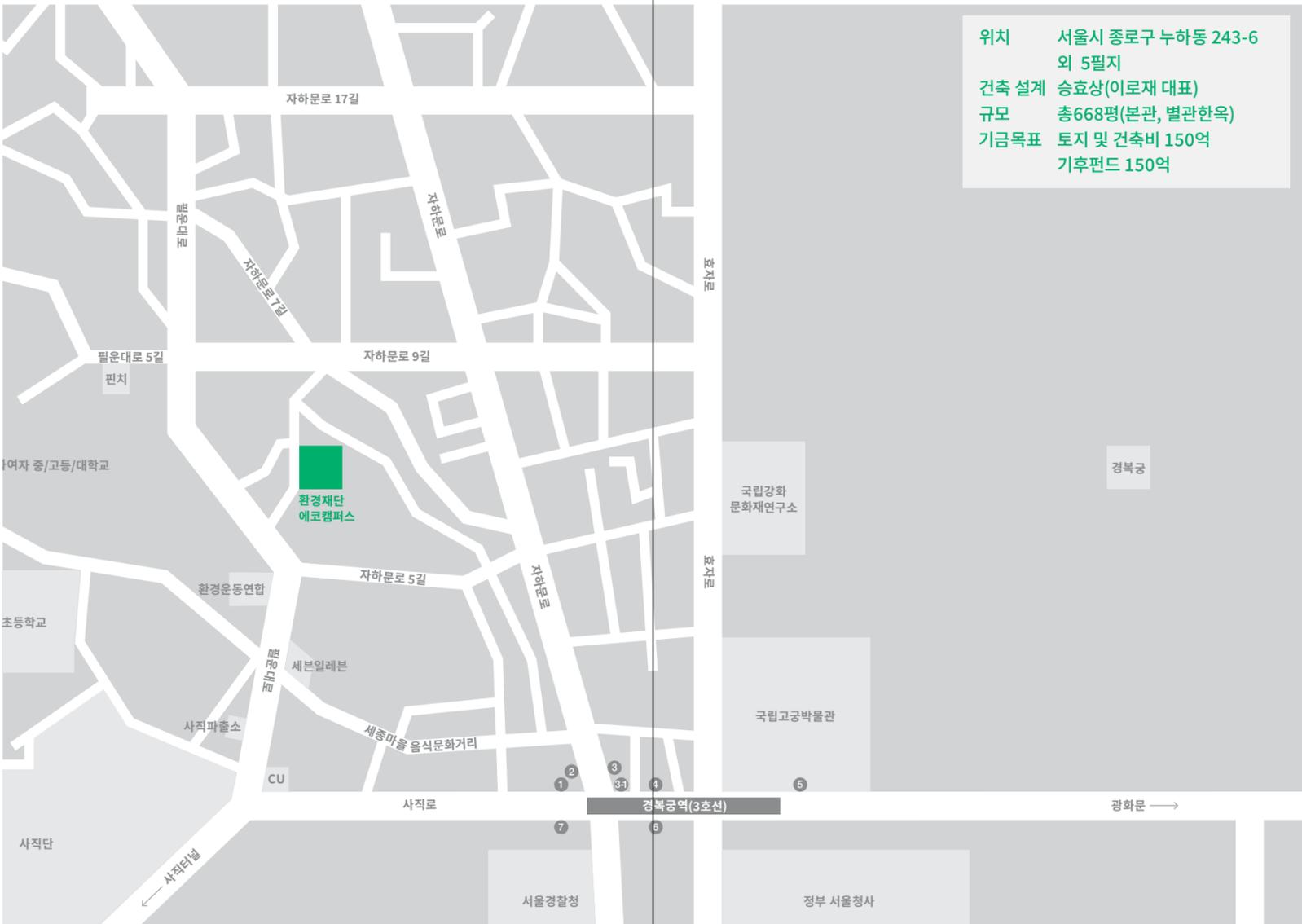
에코캠퍼스는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공간 자체가 기후환경 문제의 해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제로를 구현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목표로 캠퍼스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조화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에코캠퍼스가 기후솔루션을 꿈꾸는 인재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탄생했으면 합니다. 기후대응 싱크탱크이자 그린리더 양성기관인 이 공간이 어린이를 위한 환경 플랫폼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미래를 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43-6 외 5필지  
**건축 설계** 승효상(이로재 대표)  
**규모** 총668평(본관, 별관한옥)  
**기금목표** 토지 및 건축비 150억  
 기후펀드 150억

에코캠퍼스는 가장 앞선 친환경기술을 적용하고, 폐건축자재로 만든 벽돌, 산물로 타다 남은 나무 등 리사이클링 재료를 활용하여 지어집니다. 짓는 과정 중 탄소 발생량까지 계산해 상쇄하여 탄소제로, 에너지제로 건축의 모범사례가 될것입니다.

**2F**

에코캠퍼스는 연구를 통해 축적된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신력과 영향력을 갖춘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타워를 꿈꿉니다.

- 강의실**
- 교육 컨퍼런스홀
  - 소형 회의실

**1F**

에코캠퍼스는 현존하는 기후 솔루션을 모두 수집하고 공유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 개방형 라운지**
- 기후환경 라이브러리
  -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
  - 싱크탱크

**B1 / B2**

에코캠퍼스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인식전환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 B1 상설 전시공간**
- 기후변화 상황실
  - 체험형 교육공간
- B2 다목적 홀(140석 규모)**
- 환경영화 상영, 공연, 강연

- 한옥별관**
- 에코캠퍼스 후원자 라운지
  - 채식 레스토랑 및 휴식공간

- 야외공간**
- 인양산,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 데크
  - 연못과 자생식을 정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강력한 자원을 가진 국가라 해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코캠퍼스가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챌린지에서 한국의 환경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주길 당부드립니다.



**고현숙**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흔히 수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업의 경영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관행은 지구에 닥친 위기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경영은 새로운 3P(planet, profit, people)가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에코캠퍼스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성숙한 그린리더들이 육성되길 기원합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재앙인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인 구달 선생은 “과격하면 상대가 움츠러드니, 중요한 건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코캠퍼스는 기후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와도 기꺼이 마주 앉아 얘기할 수 있는 성숙한 허브이길 바랍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에코캠퍼스를 통해 기술이 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고 인류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에코캠퍼스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21세기형 테크 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트렌디한 조직이 되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니지먼트하는 기업으로서 에코캠퍼스에 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과 기후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1300억 원을 기부해 탄소 제거 방안을 공모했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키우고 싶습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환경재단의 미래인 에코캠퍼스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다른 기업인들도 에코캠퍼스를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에코캠퍼스에서 공부한 기후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기후 위기 해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지구를 더 건강하게 살리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조천호** 대기과학자,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오늘날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 바우하우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9년 설립해 1933년에 폐교됐는데도 여전히 바우하우스 얘기를 합니다. 현재 EU가 진행하는 빌딩의 에너지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름이 바우하우스입니다. 환경재단과 에코캠퍼스가 제2의 바우하우스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신경준** 숭문중학교 환경교사  
 경북 안동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10대들의 교육 공간입니다.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조선의 10대들은 글을 읽고 토의하고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만대루가 시대를 담은 그릇이었다면, 에코캠퍼스는 환경을 담은 그릇이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환경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토론과 기후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제 교육은 닫힌 학교에만 있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코캠퍼스가 공교육이 미처 담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형 미래 교육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친환경 건축을 시도하고, 정부와 기업들과 연계하고 다보스포럼처럼 에코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환경포럼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문화인류학자  
 기후재난은 삼림이 재생되는 속도보다 인류가 더 빠르게 숲을 파괴하는 등 지구 자원을 과소비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빈부 격차 등 불평등이 심해지고 자원고갈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국제환경단체는 국경을 넘나드는데 왜 우리는 국내에서만 활동할까. 환경단체가 문제 지적을 넘어 대안을 직접 만들 수 없을까. 공교육의 상상력을 벗어난 기후환경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경제 패권을 가를 기후테크는 정부, 기업이 각자 알아서 하면 될까. 우리가 에코캠퍼스를 세우려는 이유입니다.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  
 기후위기가 심각하지만 극복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매년 GDP의 2%를 친환경 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면 기후변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2%는 산술적으로는 많은 돈이지만 실현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임무는 여기(파괴적 예산)에서 저기(친환경)로 예산의 2%를 옮기는 일입니다.

이제 환경재단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그린리더들의 연대 플랫폼 '에코캠퍼스'를  
역사가 깃든 서촌에 펼쳐 놓으려 합니다.

## 후원문의

—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사무처

TEL. 02-2011-4300, 4369

FAX. 02-725-4840

[ecocampus@greenfund.org](mailto:ecocampus@greenfund.org)

[www.greenfund.org](http://www.greenfund.org)

04533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7층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학교 하나가 세워집니다.  
'공예와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시도한 이 학교의 이름은  
바우하우스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 접근법으로 유명한 이 학교가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 끼친 영향은 크고 넓습니다.

정확히 100년 후인 2019년.  
서울 서촌에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공간의 꿈이 피어 오릅니다. 시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후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을 담아낼 공간의 이름은  
에코캠퍼스입니다.

스  
피스  
캠퍼스  
코캠퍼스  
이코캠퍼스

# 에코캠퍼스 건립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해 주신 금액은 산불, 폭염, 해일, 가뭄 등 기후위기를 해결할 인재양성소 에코캠퍼스 건립에 사용됩니다.

- 1억원이상 기부해주신 분은 'Climate Honors Club' 회원으로 특별히 모십니다.
- 모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법인세법 24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별 예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3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공간조성 예우	공간네이밍	●				
	라운지이용	●	●			
주요 행사 초청	재단 주관 행사 초청	●	●	●	●	●
	리더십 과정 참가비 장학금	3명	1명			
	환경영화 기관 상영	●	●			
후원자 예우	기부자의 벽에 이름 새기기	●	●	●	●	
	감사패 증정	●	●	●	감사장	감사장
	SNS / 홈페이지 게재	●	●	●		
	기부 약정식	●	●	●		
* 모든 후원자 분에게 세제 혜택이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제공합니다.						
* 친환경 건축을 위한 자재, 내부시설과 비품 기부가 가능합니다.						

후원문의 |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사무처

TEL. 02-2011-4300, 4369

FAX. 02-725-4840

EMAIL ecocampus@greenfund.org

www.greenfund.org

04533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7층

## 환경재단

# 에코캠퍼스 건립기금 후원약정서

약정하신 기부금은 에코캠퍼스 건립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약정인 정보

성함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기부내용

기부금액

납부방식

일시 납부 예정일      년      월      일      \*일시납부 시 기부금 입금계좌  
기업은행: 02-2011-4300, 예금주: 환경재단

분할 ① 분납액: 매월 (      원) 이체일: 5일 15일 25일

② 분납횟수      회 (      년      월부터)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
출금은행	카드사
계좌번호	카드번호
예금주명	명의자
생년월일	유효기간 MM/YY

\*신용카드 후원의 경우 비밀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합니다. 추후 전화로 문의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

예 (주민등록번호      -      )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본 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건립기금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원과 참여 안내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은 QR코드  
에서 확인하세요.